

“탈환 vs 사수” 광주 서구갑 혈투 예고

가칭 ‘비른미래당’ 송기석(55)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재선거에 누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광주 서구갑 재선거에 자천티천 거론되는 인사는 5명 안팎에 이른다.

우선 민주당은 전직 국회의원인 박혜자 서구갑 지역위원장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의 리턴 매치가 눈길을 끈다. 박 위원장과 송 이사장은 지난 2016년 20대 당시 당내 경선에서 맞붙어 송 이사장이 50.90%로 현역 의원인 박 위원장을 간발의 차로 누리고 공천장을 받았으나 국민의당(民的) 녹색 돌풍에

민주, 박혜자—송갑석 2년 만에 리턴 매치

야권, 김명진·정용화·김정현씨 거명돼

밀려 고배를 마셨다.

박 위원장과 송 이사장은 이후 2년 가까이 서구갑 지역구를 중심으로 비단 민심을 훔으며 권도중래를 꿈꿔왔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8곳에서 모두 참패한 민주당은 서구갑을 주춧돌 삼아 당의 전통적인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세력 재건에 나서고,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1당 의석 다툼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비(非)여권 도전자도 줄을 잇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외대 행정관을 지낸 김명진 전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이 출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2016년 2월 국민의당 침입 이후 중앙당 공보실장을 지낸 김정현 민평당 공보실장도 민평당 배지를 달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도

출마가 유력시된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경선에서 득표율 1위(41.3%)를 차지했으나 ‘정치신인 20% 가점’을 두고 “정치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논란이 일면서 결국 2위 송기석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민평당 정 회장을 비롯한 미래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성이 큼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2016년 2월 국민의당 침입 이후 중앙당 공보실장을 지낸 김정현 민평당 공보실장도 민평당 배지를 달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광주고용노동청, 설 연휴 전후 산재예방 부실사업장 감독

노·사 합동 연휴 대비 안전점검 실시 지도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

(2.8.~2.14.) 및 직후(2.19.~2.23.)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도록 지도한다.

연휴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 이완, 생산설비의 가동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해 사업장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티워크레이인이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율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연휴 직전 점검 기간 중 자율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지 불시에 지도·점검을 하고,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남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및 한반도기 게양식 윤장현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시청사 국기게양대 앞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한반도기 게양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6곳 국가기관 유치 ‘시동’

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등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전략 산업의 성과를 견인할 국가기관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유치를 위해 태양성조사 연구 용역을 했으며 목포와 영암·등 4곳 정도의 후보지로 물색해 놓고 있다.

1976년에 개소해 40여 년 넘은 역사를 지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친환경 미래선박 기술·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등 다양한 분야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본부는 대전·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경남·심해공학수조는 부산·해수플랜트연구센터는 강원에 있다.

전남도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선박의 안전·보건·해양환경 분야 연구와 전남 선박해양산업의 특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서부정비청 유치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미쳤다.

전남도는 목포신항만 부지 15만

6740m²에 총 사업비 2578억원을 들여 해경 서부정비청을 건립한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해경서부정비청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상태이다.

전남도는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통해 목표로 삼고 있다.

전남도는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한국수산개발원(이하 KMD) 전남 분원 유치를 위해 광주 전남연구원에 유치용역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의뢰한 상태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해 12월 KMI에 의뢰, 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차례 요구했던 국립 김산연 연구소는 기관 시설보다 전남도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해조류 연구센터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전남의 공약사업으로 약속한 민족 국가기관 유치가 이뤄지도록 정치권 등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김성환 동구청장 “전남대병원 존치 희망”

김성환 동구청장은 전남대병원 이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8일 오전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을 면담하고 병원 이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병원장실에서 “일부 지지체가 혈설성 없는 제안으로 병원 이전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지역민과 고락을 같이해온 병원 이전논의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구, 대표적 재난취약시설 전통시장 안전점검

광주 서구가 지난달 국가안전대진단 시작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대표적인 시설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최근 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날 서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찾아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나 노후화된 차단기 등 접포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공무원 및 아케이드 설치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故 이강하 작가 작품전시회 열린다

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에서 ‘이강하의 길’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고인의 작고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양림동에 거주하며 작가 본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며 그렸던 작품 ‘무등산’을 비롯해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영산강 사람들’, ‘백’ 등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5년의 암 투병 생활 끝에 지난 2008년 2월에 숨을 거둔 고 이강하 작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감을 짜고 붓을 훨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이라며 무등산의 별이 되기까지 치열하게 예술가의 삶을 살아왔다.

북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나서

광주 북구가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및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및 사회 복귀 등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만 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재학생의 경우 만 18세 초과 및 24세 이하 포함으로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등이 오는 9월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등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中과 협력체계 구축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廣東省 珠海市)와 신재생에너지·전기차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7일 오후 귀국했다.

지난 5일 2부8일 일정으로 출국한 민 구청장은 6일 주하이시와 배터리 산업,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두 도시가 연대 시스템을 모색했다.

민 구청장은 “인력에너지그룹 파트너 기업인 쥐지더가 광주에 배터리 및 전기 저장장치 조립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될 것이다.”며 “전기버스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광주에 세우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 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분묘개장 공고(1차)

장시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산38번지, 산38-1번지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량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장장소: 오룡군립묘원남쪽골당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산290-380-3840]

6.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1)길5(용산동)

남선이앤씨(주) 062-221-5181

9. 신고방법: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죽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신고처: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1)길5(용산동) 남선이앤씨(주)

대표전화 062-221-5181

11.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 2. 9.

위공고인: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21번길5(용산동) 남선이앤씨(주)
대행업체: 담양세마을장례식장 061-383-4444